

David deSilva 박사 , 외경, 강의 6, 자세히 살펴보기: 솔로몬의 지혜, 그리스 에스더, 세 번째 마카비.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6부, 자세히 살펴보기, 솔로몬의 지혜, 그리스 에스더, 마카베오 3서입니다.

이른바 솔로몬의 지혜서(The Wisdom of Solomon)는 익명의 저작물이지만, 6장부터 9장은 마치 솔로몬의 관점에서 쓴 것처럼 쓰여 있다.

물론 솔로몬은 이스라엘 현자의 수호성인이었기 때문에 지혜와 교훈에 관한 전통의 많은 작품이 그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작품의 경우 마치 그가 쓴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리스어로, 아마도 이집트에서, 따라서 아마도 거대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본거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대 전환기에는 아마도 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의 기원을 지적하는 것 중 일부는 언급된 책에서 이집트인에 대한 적대감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실제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지배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함께 동물 숭배로 알려진 동물 숭배에 대한 정죄일 것입니다. 동물은 단지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라 신의 화신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로마 통치 초기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바뀔 무렵인 기원전 수십 년, 서기 수십 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불경건한 자들이 의인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담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옹호하고 불경건한 자를 벌하시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 섹션은 분명히 다릅니다. 6장과 9장 사이에는 지혜의 본질에 관한 기도와 일종의 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경의 역사서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회상합니다.

그런 다음 10장부터 시작하여 책 끝까지 작가는 세 번째 차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의 가장 큰 부분인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그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담론에 참여하며, 특히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재앙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여행이 있지만.

제가 말했듯이 책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불경건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불경건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사이의 긴장, 적개심, 적대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자는 불경건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고대 심리학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쾌락 과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자는 불경건한 사람의 내적 생각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짧고 슬프고, 인생이 끝나면 구제할 방법이 없으며, 저승에서 돌아올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과 같으니 죽음은 봉하여져 돌아올 수 없고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젊었을 때처럼 창조물을 마음껏 활용합시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흥청거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디든 즐거움의 흔적을 남기자. 이것이 우리 몫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의롭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과부를 아끼지 말며 노인의 백발을 돌아보지 말자. 그러나 우리의 힘을 우리의 정의의 법칙으로 삼으십시오.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생만을 위해 산다면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린다. 당신이 죽음을 내다보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생에서 얻게 될 환경, 즐거움, 이득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왜곡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될 것이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삶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일시적인 부에 대한 접근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웃을 이용하고 학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전개되면서 저자는 불경건한 자들이 의인을 표적으로 삼아 반증하려고 생각하며, 특히 의인을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하게 함으로써 의인의 신앙 주장을 반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서 불경건한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배도한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의로운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등을 돌린 것에 대해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육.

우리는 다른 텍스트에서 지배적인 문화의 네트워크에 완전히 동화되고 그에 속하는 열매를 즐기기 위해 토라를 기꺼이 떠나려는 진보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역학의 또 다른 반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는 전통적인 동료들, 보수적인 동료들, 또는 후진적인 동료들에게 가장 큰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바로 배도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힘이 옳다는 철학을 따르고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얻음으로써 이생에서 실제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순전히 어리석은 것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는 또한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인의 사고방식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함의 샅을 바라지 아니하며 흠 없는 영혼의 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와 달리 의인은 율법을 지키며 자기의 길을 행하는 자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원하신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비추어 볼 때, 의와 불의의 결과는 바로 신명기와 다른 성구들이 믿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이생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지만, 그들의 덕으로 인해 이생 이후에 누리게 될 불멸의 축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억압했던 의인의 보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멸시했던 율법을 준수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장으로 구성된 이 첫 부분에서 저자는 불멸의 희망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많은 기독교계의 장례식에서 자주 읽혀지는 본문으로서 교회의 전례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외경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닿지 않을 것이라고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보였으며 그들이 떠나는 것은 재앙으로 여겨지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은 멸망으로 생각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을 받았지만 그들의 희망은 불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조금 받은 후에 큰 복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자기에게 합당한 자로 여기셨음이니라 그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것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것들을 받으셨습니다. 저자가 의인이 이생에서 견뎌야 하는 시련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 참조 틀은 신약성서 전체에 걸쳐 다시 나타나며, 이 특정 요점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지만, 문화적 공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키거나 훈계하시는 것, 일종의 시련과 시험을 통한 신적인 양육이라는 사상이 등장하고, 금의 가치를 시험할 때처럼 의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이미지도 등장한다.

용광로에서 녹아 불순물이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지혜에 관한 저자의 담론과 부분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지혜의 기원, 지혜의 본질 및 활동을 설명합니다. 그 중 일부는 잠언 8장에 의존하여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혜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옆에 있는 장인, 그 과정을 돕고 기뻐하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지혜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 광채, 조명으로서 신성의 확장으로서 지혜의 더욱 고상한 의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사람, 즉 의인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수단이며, 또한 피조물을 유지하는 지혜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주 질서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존, 그리고 지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가나안 족속과 출애굽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집트인들에 대한 저자의 성찰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애굽에 닥친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 나오는 두 가지 논제를 보여주기 위해 길게 반복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벌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바로 그 일들.

저자가 다양한 재앙을 고려하면서 이 두 논제는 이 9개 장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이 섹션의 중간에서 저자는 이방인의 종교적 관습을 비판하는 몇 가지 여행에 참여하며 예레미야서나 벨과 용의 이야기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수준에서 비판합니다. 물론 저자는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한 전형적인 주장을 사용하지만, 그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의 종교적 관습이 매우 인간적이고 이해 가능한 기원을 재구성함으로써 그 신앙을 불신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방 종교에 대한 그의 설명은 주변 종교 집단의 발흥에 대한 유헤메루스의 설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우헤메로스는 종교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한 그리스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저자는 슬픔에 잠겨 도저히 놓아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죽은 자녀의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죽은 아이의 형상을 돌보며 어느새 이 형상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은 자녀들에게 그 관습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은 죽은 형제, 삼촌, 조상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버지의 애도로 시작된 것이 불가침의 종교 숭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컬트의 기원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왕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먼 왕에게 아첨하고 관계를 맺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 통치자의 동상을 만들고 그의 예술의 모든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실물보다 더 큰 인물로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 통치자의 동상에 어떻게 경의를 표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왕은 먼 군주에게 아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다시 알기도 전에, 진정한 인간 존재의 동상에 바쳐지는 본격적인 의식과 희생, 찬양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헬레니즘과 로마 세계의 통치자 숭배의 기원에 대한 다소 합리적인 설명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저자는

이집트와 유대를 제외한 동부 지중해 전역에서 큰 사건이었던 특정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저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확언합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어떤 것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사실에서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멸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낸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을 조금씩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설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 땅이 들짐승에 의해 점령당하고 너무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고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합리적인 이스라엘 중심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매우 다른 민족 중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방인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인내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들이며, 그들의 본성이 악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할 것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금씩 징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경고도 이집트인들을 감동시켜 회개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인용하자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운명이 그들을 이 피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이끌었고 최근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용은 결국 이 특별한 저자가 기대하는 비유대 민족에 대한 진정한 희망보다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 더 많이 말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고대 세계에서 두 가지 형태, 즉 개신교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 친숙한 히브리어 형태와 다른 긴 그리스어 형태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다소 놀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히브리어 버전의 그리스어 에스더에는 여섯 개의 추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RSV처럼 최근의 외경(Apocrypha)의 오래된 번역본에서 종종 분리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경에서 다니엘에 대한 추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색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가 사항이 스토리의 어디에 적합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나머지 부분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버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하나님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는 명령은 모르드개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전체가 다른 책임입니다. 그러나 물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6개의 추가 자료 블록입니다.

창의적으로 추가 A와 추가 F라고 불리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추가 항목인 첫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은 에스더 전체에 대한 프레임 내러티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환상, 죄송합니다, 첫 번째 판은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궁정에서 꾸었던 꿈인 모르드개에 대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추가 내용은 모르드개가 꾸 꿈이나 환상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히 칙령의 전체 내용을 제공하는 두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칙령은 유대인들이 제국 전역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 이전 칙령을 폐지하는 칙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추가 B와 E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에는 추가 C와 D라는 두 가지 추가가 있습니다. 추가 C는 기도인데, 히브리어 에스더에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 에스더는 실제로 모르드개의 기도 본문을 전하며, 에스더의 기도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건의 전환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마지막 추가판인 제4판인 추가판 D는 제 생각에 히브리어 에스더의 다섯 구절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왕의 상황을 뒤집는 훨씬 더 완전한 장면으로 대체합니다. 아내에 대한 부드러움을 향한 마음과 그녀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 따라서 에스더의 그리스어 버전은 히브리어 에스더보다 상당히 다르며 훨씬 더 종교적이고 명백히 종교적인 본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추가 사항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히브리어 에스더서에서 볼 수 없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음, 추가된 것 중 하나인 제2판은 우리에게 고대 세계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에스더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반유대인 편견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페르시아 시대가 아닌 헬레니즘 시대의 반유대적 편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 B에서 하만은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왕의 칙령임을 우리에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하만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어떤 적대적인 집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독특한 법률 때문에 각 나라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므로 정부는 우리가 잘 관리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 속에 홀로 서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법률 때문에 이상한 생활 방식을 따르며 우리의 행동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국이 평화롭지 못하도록 최악의 악을 행합니다. 분명히 이 칙령에는 단순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유대주의의 진정한 근원이 될 몇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명백한 분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트리아인과 페르시아인, 리키아인과 프리지아인은 유대인들이 공동체에서 했던 방식, 디아스포라 전반에 걸쳐 삶을 조직한 방식처럼 다른 모든 종족 그룹을 배제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고수하고 드러내는 방식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여성혐오증, 즉 외국인에 대한 증오, 외부인에 대한 증오라고 부르는 렌즈를 통해 이것을 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토라의 규정을 심지어 문자까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을 규제하는 법칙이 정말 독특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키워줍니다.

이방인들은 토라의 음식 규정과 할례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엇을 위해 무엇을합니까? 또는 안식일에 대한 아이디어, 7일 중 하루만 쉬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일은 고대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에 대한 약간의 창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것에 집중되는 기하급수적 편견의 종류도 얻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기 유대인들의 구체화된 영성에 대한 그림도 얻습니다. 에스더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왕의 예복을 벗고 굵은 베와 상복과 장례식 옷을 입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향료 대신 재와 똥을 머리와 몸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개신교인으로서 저는 기도하기 위해 일부러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나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재와 똥을 내 몸에 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몸을 다루는 일에서 다른 종류의 경건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마음의 틀과 하느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판 중 하나인 판 C에서 민족적 경계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에 도입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다판의 저자는 유대인 여자인 에스더가 이방인과 결혼하여 성관계를 갖고 이방인과 그의 궁정과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은 선량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림절의 여주인공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이어 에스더서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인 나는 하만의 상에서 식사하지도 않았고, 왕의 잔치를 베풀지도 않았고, 신들에게 바쳐진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뜰 중앙, 심지어 중앙에 정결한 음식을 보관했다는 생각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그녀와 결혼한 이방인 통치자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것에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 할레받지 않은 왕이나 어떤 외국인과의 침대를 공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가 왕과 결혼해야 했지만 그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서 그녀는 저자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을 표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을 통한 혼합. 우연히도 이것은 칙령인 B판에 반대되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자신들의 독특한 관습, 독특한 정체성, 주변 이방인과의 분리를 유지하는 데 정말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버전의 에스더는 또한 에스더 이야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대인의 독특한 관습이 편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더라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민족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B판과 C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축제에 이름을 붙인 부림절의 재해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히브리어 버전의 에스더에서 제비는 단순히 유대인을 죽일 날을 결정하기 위해 뽑힌 것입니다. 그러나 F판에서는 두 번째 해석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용 두 마리가 싸우러 나가고 시내가 흐르는 것을 본 꿈과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떠오르지 않는 다른 이상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면서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비를 뽑으신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를 구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운명은 운명이라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방인의 운명을 유대인의 운명과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마카베오 3서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마카베오 3서의 역동성이 그리스 에스더의 역동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책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구두상 유사한 유사점도 있는데, 이는 마카베오 3서의 저자가 다른 출처 중에서 에스더나 그리스 에스더, 아마도 그리스 에스더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읽은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 그러나 유디트나 토비트처럼 마카베오 3서는 역사소설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치하의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고려하면, 디아스포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제목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3차 마카베오서라고 합니다.

마카베오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마카베오 1세와 2세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디인지 기억하고 싶지만 프톨레마이카 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셀레우코스 치하의 예루살렘과 그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프톨레마이오스 치하의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셋째 마카베오서의 줄거리는 둘째 마카베오서의 줄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줄거리의 유사점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연속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나 이야기의 연속 같은 방식으로 그 이야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에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아우구스투스 통치 초기부터였을 것이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고민 중 하나는 라 오그라피아(*laographia*) 인데 , 이는 백성의 등록을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이집트의 그리스 시민과 이집트 원주민 인구를 분명히 구분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리스 시민과 이집트 원주민 사이에는 지위, 특권 및 권리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우구스투스 통치 이후 이집트의 유대인들은 그리스인이 아닌 원주민 이집트 인구의 지위로 강등되기보다는 이집트의 그리스 시민이라는 지위가 명확해지기를 매우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야기는 불완전합니다. 오프닝 장면이나 장면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 중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함이 있는 원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고의 모든 사본은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남쪽,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에 위치한 라피아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안티오코스 3세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와 싸웠던 여러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젠장,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의 합의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는 기원전 218년 라피아 전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기까지는 파나이우스 전투에서 2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쨌든,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승리하여 안티오코스를 성공적으로 물리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승리 후, 프톨레마이오스는 셀레우코스 군대의 침공 이후에 자신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 제국의 모든 땅을 여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은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면 다른 모든 도시에서 했던 일을 그곳에서도 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지역 성소를 존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지방 성소를 존중함으로써 지방 성소에 들어가기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간 고고학 팬이거나 건축 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서 사물의 내부 작동 방식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카비 2서와 가장 가까운 평행선이 나타나는 곳이다. 2 Maccabees의 Heliodorus와 마찬가지로 프톨레마이오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구타를 당하고 비유적인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이집트로 돌아와 그곳의 유대인 인구에 대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돌아온 후 자신의 제국 한가운데서 유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계속하는 일은 실제로 선물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영예를 바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민권, 그리스 시민권, 알렉산드리아 종교에 참여하는 대가로. 그건 그렇고, 이것은 또한 서기 1세기 내내 그리스 도시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웃 사이의 실제 논쟁을 반영합니다. 그리스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시민이 되고 싶다면 다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그들의 종교를 공유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매우 명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들을 욕한다면 동료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제안을 거부하면 등록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laographia 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 그들은 등록되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단지 수백 명의 유대인만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수백만 중 300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왕에게 호의적인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적으로 대합니다.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유대인의 타고난 악의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노예제도는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아서 죽일 것입니다.

히포드롬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알렉산드리아 외곽에 있는 전차 경주 경기장인 히포드롬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고대의 전차 사단에 해당하는 전쟁 코끼리들에게 짓밟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 이 코끼리들은 갑옷을 입고 유향과 기타 맛있는 음식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광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의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결국, 천사들이 다시 개입하여 코끼리들이 돌아서서 그들을 유대인 포로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짓밟도록 겁을 줍니다.

왕은 이것을 보고 자신이 행한 일을 몹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와 함께 유대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도중에 14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먼저 동족에게 배신자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민권을 받은 유대인 300명.

이 이야기에는 이방인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웅변적인 증인인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초반의 세 번째 장 프톨레마이오스에서 화자는 일부 이웃 사이에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면서도 음식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족, 즉 이집트를 위한 유대인들의 선행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종족의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배와 식습관의 차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유대 민족은 왕이나 권위자에게 충성하지 않고, 왕의 행정에 적대적이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 에스더의 추가 B에서처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특별한 율법을 고수함으로써 결국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숭배할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는 항상 여러 신을 숭배할 것이며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말했듯이 결코 다른 집단에게 너희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습관, 즉 음식 문제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유대인 공동체가 올바른 동물로부터 고기를 얻고, 올바른 방식으로 도살되어 카슈루트를 유지하고, 조상 율법의 식이 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시장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형성한 방식의 문제적 성격입니다. .

덧붙여서, 사회 공학 도구로서 토라의 천재성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원래 의도된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완벽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들이 주변 나라들과 섞이고 섞이고 용해되는 것을 막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긴장, 즉 유대인 공동체 내의 긴장에 대한 증인도 얻게 됩니다. 이미 솔로몬의 지혜서 1장부터 5장에 관해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카비 제3서 2장을 읽습니다.

이제 일부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종교를 위해 취해진 조치를 혐오하는 척하면서도 왕과의 모든 교제를 통해 큰 명성을 누리려고 기꺼이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배교자가 된 일부 유대인들이 비록 그것이 정말 큰 일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것을하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다수는 강했고 그들의 종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등록을 면하려고 용감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자신들을 버린 유대인들, 즉 배교자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굴복한 사람들을 유대 민족의 적으로 여기고 더 이상 그들과 연합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서 배교했다는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수치심을 주는 기술을 사용하게 했으며, 경건한 유대인들이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당신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약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후 왕에게 청원하여, 자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유대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위해,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신의 법을 어긴 자들은 결코 왕의 정부 아래서 신뢰할 수 있는 신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왕국 안 각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진멸하여 공개적으로 본을 보이도록 그들에게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이교도들을 진압한 이후로 즐거운 축제로 지켰습니다. 따라서 수치심 기술은 n급 수준입니다. 이제 배교한 유대인들은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공개적인 본보기가 되는 방식으로 처형됩니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이상한 종류의 소원 성취로서, 언약을 버린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는 자, 즉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 공동체의 손에 들어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더 고무적인 내용으로 마카베오 3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성전 기간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창을 제공합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에서 대제사장 시몬이 쓴 것이고,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 쓴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영웅들은 결국 Eleazar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엘르아살은 경기장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표준에 대해 오만하게 행동하는 집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시를 심판하시는 성경 기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거인의 이야기, 즉 A WOL 천사와 그들의 인간 여성 파트너의 불경한 잡종 후손, 그리고 소돔과

파라오의 예를 회상합니다. 그는 경전 기록의 이러한 역사적 선례를 바탕으로 오만한 자, 즉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입하시고 성전의 신성함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사적 선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은 이야기의 끝 부분에 있는 엘르아살의 기도에서 다시 한 번 기도의 기초로 등장합니다. 그는 재앙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전체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코끼리. 그리고 그는 홍해에서의 바로의 예와 하나님께서 그곳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합니다. 산헤립에게서 예루살렘이 구출되고 느부갓네살에게서 바벨론에 있는 충실한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젊은이가 구출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기도의 근거는 과거에 당신의 백성이 오만한 외국인에 의해 위험에 빠졌을 때 행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에 개입하기 위해 다시 행동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토빗의 기도와 같은 책에 나오는 앞선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신성한 기록,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과 일치하게 기도하는 것을 예시하며,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의도와 뜻을 거룩한 전통에 나타내신 것과 관련하여 성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품에서 벗어난 것인지. 이 패턴은 다시 한 번 유대교와 기독교 관습에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전통에서 기도회라고 불리는 기도 주기를 살펴보세요. 마카베오 3세의 이야기는 몇 가지 다른 일도 성취합니다. 이는 이집트 유대인 인구와 예루살렘 유대인 인구 및 그 성전 사이의 연관성을 확증합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 성전과의 거리가 신성한 장소의 운명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처음부터 유대인들에 대항하여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확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유대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디아스포라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야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마카베오 2서 앞에 붙은 편지 중 하나에서,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이 편지의 작가들은 자신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직 포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다고 단순히 가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유배는 저주, 즉 신명기의 저주의 결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마카베오 2세 이야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